

전남 마을반찬 전국에 '꾸러미' 배달

나주 남평농협 사업추진단 통해 도시지역 회원 고정 공급

전남지역 마을주민들이 만든 반찬이 도시지역 고정 소비자들에게 꾸러미 형태로 배달된다.

전남도는 마을반찬사업 우수 사업장인 장성 북하특산물사업단의 깻잎 장아찌, 오징어 젓갈 등 소포장 상품이 나주 남평농협의 '꾸러미' 품목에 포함돼 20일부터 전국 꾸러미 소비자들에게 공급된다고 밝혔다.

나주 남평농협 꾸러미 사업에 마을반찬이 들어가게 된 것은 전남도가 마을반찬 판매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판로를 찾고 있던 중 소비자에게 다양한 품목을 공급하려는 나주 남평농협 꾸러미사업 추진단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이뤄졌다.

꾸러미 사업은 지역에서 생산된 신선하고 깨끗한 지역 농산물을 지역에서 먼저 소비하자는 '로컬푸드' 개념에서 출발한 사업으로 현재는 나주 남평농협과 순천, 영광의 언니네닷컴 등 전남지역 10여개 조직들이 도시지역 회원 1500여명에 대해 1회에 8~12개 품목의 전남산 친환경농산물, 유

정란 등을 담아 3만원에서 6만원에 공급하고 있다.

전남도는 앞으로도 다른 꾸러미사업 추진 단체와 접촉해 꾸러미 사업에 마을반찬이 들어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

명창환 전남도 식품유통과장은 "마을반찬은 친환경농산물 등 전남의 우수한 농산물을 활용, 시골 어머님들의 정성스런 손맛을 더해 만들어지는 반찬"이라며 "앞으로 다양한 판로를 개척해 마을반찬 사업이

더욱 활성화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마을반찬 사업은 전남도가 지난 2009년 전국 최초로 지역에서 생산되는 친환경농산물 등 우수한 농산물로 반찬을 만들어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 시작했다. 현재 66개소의 마을반찬 사업장이 운영 중이다.

이들 사업장 중 1억원 이상 매출을 올리는 업체는 장성 북하특산물사업단을 비롯해 보성 정드림, 안도 소안 참다시마 등 6개소에 이르고 앞으로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 등 농어촌 소득 증대에 한 몫 하고 있다.

/장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민선 5기 3년 성과와 과제

농어업 CEO 육성·소득 높이기

강진군



현장·소통행정 호평

현안사업 예산 절실

지난해 보결선거로 당선된 강진군 강진군수는 "현장에 답이 있다"는 확신을 갖고 농업현장을 수시로 방문하고 소통을 강화하는 등 농업인 소득 증대에 총력을 경주하고 있다.

지역경제를 살리고 군민들의 삶의 질이 실질적으로 향상되기 위해서는 전문 농어업인을 육성하고 친환경 생명식품산업에 예산을 집중투자해서 전체 인구의 71%를 점하고 있는 농어업인들의 소득수준을 높이는 것이 급선무라는 판단에서다.

취임과 동시에 63개 품목별 연구회 운영, 녹색문화대학·이장대학·여성대학 등 8개 과정의 전문 교육 확대 운영을 통해 전문 CEO 농업인을 육성하는 한편 예산의 31%인 760억을 농업부문에 집중 투입하는 등 농림축수산업 소득 극대화 시책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사람중심 군정'을 내건 강 군수는 삶의 현장 수시 방문, 분야별 정책위원회 구성 운영 등 소통과 참여정치를 통해 짧은 기간에 갈라진 민심 수습과 군민 화합분위기를 조

112억원, 강진한우 명품화 사업 30억원 등 지난해 대비 100억원이 증가된 90건, 495억원의 국·도비를 확보했다.

또 축구, 야구, 럭비 등 잘 갖춰진 스포츠 인프라를 활용해 연중 20여개의 전국대회와 동·하계 전지훈련을 통해 20만 여명의 선수단을 유치하는 등 전국 운동부수단에게 전국 제일의 스포츠 메카로 각인시키는 한편 다산의 역사 유적과 시대정신을 이어받아 국민적 관심을 받고 있는 청림 교육 명소 자리매김시킬 생각이다.

강 군수는 "군민과 공직자들의 지혜와 역량을 모아 강진만의 강점자원을 콘텐츠화하고 특화시켜 활력 넘치는 강진, 행복한 군민시대를 활짝 열어 가겠다"고 밝혔다.

다만 군 재정이 열악해 탐진강-강진만 대규모 생태 공원화사업, 강진오감 누리타운 조성, 월출산권 관광자원 개발 사업, 가우도 종합개발 사업, 강진 하평초등학교 대형 사업들에 투입할 예산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가 과제로 남아 있다. 또 주요 관광자원을 콘텐츠화하고 연계해 머무르는 관광지의 획기적인 대책도 요구되고 있다.

/강진=남철희기자 chouli@

성해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다.

내부적으로는 20여년간의 행정 경험을 바탕으로 미래산업과 한우산업팀을 신설하는 등 군 조직을 대대적으로 개편해 공직사회를 자율적·역동적 조직 문화로 변화시켜 주목을 받았다.

특히, 풍부한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 전남교통연수원 유치에 성공한 데 이어 농산어촌개발사업

공연·전시...갈고뒸는 배움의 향연

화순공공도서관 평생학습센터 수강생들 작품 발표회

화순공공도서관(관장 송영임) 평생학습센터 수강생들이 최근 자신들이 갈고 뒸는 실력을 선보인 전시·발표회를 가졌다. <사진>

화순공공도서관은 19일 "화순공공도서관 평생학습 전시·발표회"가 지난 14일과 15일 화순문화스포츠센터에서 열린 2000여명의 지역민들이 참가했다"고 밝혔다.

'행복한 삶의 변화, 희망의 열쇠, 함께하는 평생학습'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행사는 지역민의 성원속에 유치원생부터 노년층, 다문화가정 등 다양한 계층이 참여했다.

공식행사와 더불어 전시분야, 체험분야, 공연, 이벤트 등으로 짜임새 있게 진행됐으며, 관내 유관기관과 연계한 다양한 체험코너가 관람객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이와



함께 아코디언, 하모니카 등 평생교육 수강생들이 준비한 발표회가 이어졌으며, 가족과 함께 색다른 재미와 즐거운 시간을 보낼수 있도록 샌드아트메이킹 공연도 즐거움을 선사했다. 특히 샌드아트메이킹 공연은 관람객이 직접 샌드아트를 체험해 볼수 있는 시간을 마련, 색다른 재미를 줬다.

양양자 화순교육지원청 교육장은 "올해로 네번째 개최된 화순공공도서관 평생학습 전시발표회가 배움에 대한 지역민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누구나 배움에 대한 즐거움을 함께 나눌 수 있는 평생교육의 장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화순=조성수기자 css@

장흥군 3개업체 투자유치 바이오산단 등 75억 투자

장흥군은 19일 "지난 14일 군청 상화실에서 (유)FASCO, (유)진영ENG, 에코랜드(주) 등과 투자협약을 체결, 이들 업체의 공장이 바이오식품산업단지과 장평 농공단지 입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들 기업은 장흥 바이오식품산업단지와 장평 농공단지에 입주해 1만 3500㎡ 부지에 75억원의 사업비를 투자, 오는 9월까지 공장을 준공할 예정이다. 고용규모는 54명이다.

장흥 바이오식품산업단지는 지난 2012년 1단계 공사가 준공된 이후 7개 기업에 14만1000㎡가 분양 완료됐다.

오는 2014년말 최종 준공을 목표로 조성공사가 진행중인 만큼 이번 투자협약을 통해 장흥 바이오식품산업단지 분양을 활성화시키는 것은 물론 장평 농공단지 분양 및 운영에 활력을 불어넣는 등 기업유치 활동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군은 기대하고 있다.

/장흥=김용기기자 중부취재본부장

전남산림청 '항당노 참마늘버섯' 5억 연구 과제 선정

전남산림자원연구소는 19일 "항당노효과가 있는 참마늘버섯의 식품소재 안전성검증연구가 산림청 연구과제(R&D)과제로 선정돼 5억원의 정부 출연금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참마늘버섯의 식품소재 안전성검증연구는 산림과학기술 개발사업으로 농가 소득증대는 물론 산업화와 발(R&D)과제로 선정돼 5억원의 정부 출연금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식품 원재료 인증 안전성평가 등 세부과제로 이뤄진다.

전남산림자원연구소는 국내 최초로 참마늘버섯 재배법 연구를 통해 인공재배에 성공했으며 특히 신종종개발, 항당노효과 검증 등 많은 연구 끝에 산업재산권 5건을 이미 확보한 상태다.

/장흥=남철희기자 chouli@

정읍시 영원면 신기마을·입암면 신년내마을

'농어촌 주민 공동참여사업' 선정

정읍시는 19일 "영원면 신기마을과 입암면 신년내 마을이 한국마사회(KRA)와 함께하는 농어촌희망재단에서 공모한 '2013년 농어촌 마을주민 공동참여사업' 대상 지자체로 선정돼 각각 16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 받게 됐다"고 밝혔다.

신기 마을은 16가구 전체가 '이웃 사촌'이라는 덕목이 훼손되지 않은 전형적인 농촌마을이다. '두런두런 희망 새터마을 만들기 프로젝트'라는 마을 발전 목표를 위해 오래된 담장 정비, 문패 및 우체통 제작, 우리 동네

어울림 마당 등의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최종사업대상지로 확정됐다.

신년내 마을은 귀농·귀촌인들을 위한 빈집 리모델링을 통해 유지함으로써 예비농촌체험기회를 제공하고 원주민과 귀농·귀촌인이 함께하는 공동체를 복원하겠다는 사업계획서로 사업대상지로 선정됐다.

농어촌 마을주민 공동참여사업은 농촌마을 단위 주민의 참여와 협력을 통해 마을 활성화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다.

/정읍=박기섭기자 parkjs@

전북



고구마 심기 일손 돕기

순창군청 축산환경과와 풍산면 직원 20여명은 19일 풍산면 송두마을에서 황토고구마 모종심기 작업을 하고 있다. 이들 직원들은 일손이 없어 애를 태우는 풍산면 노숙농가 농가를 찾아 구슬땀을 흘렸다.

/순창=이동희기자 dhlee@

남원 두락리 고분군 국가사적 지정 추진

남원시가 발굴조사를 통해 남원 두락리 및 유곡리 고분군의 역사성과 학술적 가치를 재조명해 국가사적 지정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19일 시에 따르면 이들 고분군은 지난 1973년 6월23일 전라북도 지정 기념물 제10호로 지정됐으며, 월산리, 건지리, 행정리 등 주변 고분 유적과 함께 이 지역 가야문화유산을 알려주는 중요한 유적이다.

고분은 현재 경작, 민묘 조성 등으로

로 인해 지속적으로 훼손되고 있어 남원시에서는 2011년 군산대학교 박물관에 의뢰, 40여 기의 고분의 전체적인 배치양상 및 개별고분의 잔존 현황을 파악한 바 있다. 그 결과를 토대로 올해 전북대 박물관과 함께 정밀발굴조사를 통해 고분군의 성격과 분묘분위를 파악하고, 향후 정비방안과 보존 및 활용대책을 마련하고자 발굴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사진>

/남원=백성기기자 bs8787@



'참뽕-활어회' 새 먹거리 만든다

부안군 특화작목 활용 특화음식 개발 나서

부안군이 지역을 대표하는 특화작목인 '참뽕'과 청정한 칠산바다에서 갓 잡아 올린 '활어회'를 활용한 음식 개발을 위해 '참뽕-활어회'를 개발할 방침을 세워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9일 군에 따르면 단일품목으로 최고의 소득을 올리고 있는 참뽕과 활어회를 활용한 부안만의 음식개발개선을 추진한다.

활어회의 경우 외지산·외국산이 일부 유입되고 조리과정에서의 청결 문제, 손님 응대의 기술 미흡, 참뽕을 활용한 먹거리 부족 등 크고 작은 문제들을

을 안고 있다고 군은 판단하고 있다.

이에 따라 참뽕을 활용한 활어회 음식을 개발해 제공하고 참뽕 관련 제품을 개발할 방침을 세워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 같은 음식문화개선을 추진할 경우 활어회의 경우 외지산·외국산이 일부 유입되고 조리과정에서의 청결 문제, 손님 응대의 기술 미흡, 참뽕을 활용한 먹거리 부족 등 크고 작은 문제들을

회 센터들의 관광명소화로 주변 관광지 연계한 시너지 효과 예상된다.

군은 18일 서한진 부군수의 주재로 생활자원, 뽕재배연구, 농산물마케팅, 수산 진흥 및 증식, 일자리창출, 문화재 등 실·과·소 실무자 16명이 참석한 가운데 '참뽕과 활어회를 활용한 음식문화개선' 추진을 위한 간담회를 갖기도 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실·과·소별로 추진방안을 보고 및 논의가 진행됐으며, 기본계획(안)이 수립되는 데로 참뽕농가와 어민, 회집 등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

/부안=정재용기자 jji0681@

단신

'전주담우' 전주시 블로그 운영 1주년 맞아

전주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 '전주담우(회장 박선익)'가 최근 전주시 블로그 운영 1주년을 맞았다.

'전주담우'는 그동안 '전주전 이야기', '남부시장 문전성시', '외출을 유혹하는 아트폴리스', '전주국제영화제' 등의 주제를 발굴, 전주 곳곳의 숨

은 이야기를 찾아 전주시민과 관광객들에게 알리는 홍보대사 역할을 톡톡히 수행해 왔다. 전주시는 지난 4월 시민 블로그 서포터즈 12인을 선발하고, 자체 운영단 '전주담우'와 함께 활발히 활동 중이다.

/전주=박금식기자 전북취재본부장

부안군 8월 20일까지 꽃게 금어기 집중단속

부안군은 19일 "수산자원관리법 제 24조 제 2항에 따라 금어기인 꽃게 금어기 집중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단속대상은 금어기간 중 꽃게를 불법 포획하거나 보관 또는 유통·판매하는 행위 등으로, 꽃게어장과 항·포구 위관장 등을 중심으로 단속을 벌이게 된다. 군은 이 기간 동안 꽃게를 포

획함에 따라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안내·자제할 예정이다. 군 해양수산과 관계자는 "철저한 지도·단속을 통해 연안자원관리에 앞장서 어업인 소득 증대에 보탬이 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부안=정재용기자 jji0681@

고창군 전주장학숙 입사생 77명 추가 모집

고창군과 재단법인 고창군장학재단은 지역의 미래를 이끌어갈 인재 양성을 위해 전주장학숙 입사생을 추가 모집한다. 1차 모집시 선발된 25명을 제외한 77명을 이번에도 모집하며, 2학기부터 생활할 수 있도록 8월말 입학 예정이다.

8월 말 개관을 목표로 마무리 공사 중인 전주장학숙은 전북대 인근 금암동에 위치하고 있으며, 정원은 102명

이다. 입사희망자는 28일까지 살기좋은 고창만들기과 내 고창군장학재단에 접수해야 하며, 가정환경과 성적 등을 심사, 7월2일 입사생을 확정 발표할 계획이다.

신청 대상자는 2012년 1월 1일부터 공고일 현재까지 고창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본인이나 부모, 등록기준지가 고창인 본인이 해당된다.

/고창=윤정희기자 cy0370@

남원시 오늘 여름 휴가철 맞이 대청소

남원시는 20일 여름 휴가철을 맞아 대청소를 실시한다.

이날 오후 2시부터 2시간 동안 실시된 대청소에는 유관기관, 사회단체, 통·리장, 마을지도자, 시민, 공무원, 군부대 등 800여명이 참가할 예정

이다. 이날 참가자들은 관원투런, 테마파크, 뱀사골, 구룡계곡, 돌래길 등에 집중배치된다. 시는 청소와 함께 시정 및 환경 홍보물, 청림행정 실천 안내문을 제작해 시민들에게 배부할 방침이다.

/남원=백성기기자 bs8787@